

社說

혼탁한 산림조합장 선거

오는 17일에 실시되는 포천시 산림조합장 선거는 처남매제간에 대결구도 확정됐다. 혼탁한 말로 조합장 자리가 얼마나 좋으면 가족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인지 광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다.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배운다. 평범하지만 그것이 진리다.

처남매제간 대결도 좋다. 양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상호비방이 도를 넘어 원수가 된 것 같다. 우리나라 이야기 아닌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포천시 산림조합장 선거는 비단 처남매제간의 상호비방 선거적 외에도 문제 투성이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에 대의원수를 늘렸다는 말이 있다. 현 조합장을 선출할 때까지 32명이었던 대의원을 50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장 선거는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 먼저 편안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한 다음 국가를 다스린다는 말이다.

어린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과연 산림조합장 후보로 나선 처남매제는 이 말의 진정을 뜻을 알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산림조합은 운영되는 과정에서 비리나 부패적인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산림조합이 깨끗해지는 방안은 없을까?

형제자매 그리고 가족이 무엇인가? 형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동생이 챙겨주고, 동생이 난처한 처지에 놓이면 형님은 동생의 허물까지도 감싸주는 것이다.

산림조합 차원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공사계약이나 구매를 투명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한다면 보다 나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만약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부족하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벨로루시공화국 전직대통령 내외 포천시 방문 양 지역간 교류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스타니슬라프 슈슈케비치' 벨로루시공화국 전직대통령 내외가 이틀 간의 일정으로 지난 3일 포천시를 방문했다.

로 환담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포천시 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양측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나가는데 앞으로 많은 조건과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슈슈케비치 전 대통령은, 소련공산당 서기장 겸 소연방 대통령이었다.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연방의 해체, 독립국가연합(CIS) 결성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에서,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및 레오니드 크라프츠크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슈슈케비치 전 대통령과 박 시장은 벨로루시와 포천시가 WIN-WIN 할 수 있는 상호 교류가 앞으로 문화예술, 과학,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물리학 박사로서 벨로루시 국립대학교 핵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하기도 한 슈슈케비치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벨로루시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대통령)을 지냈으며 현재는 사회당 총수를 거쳐 교문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알렉산드르 빅토르비치 세메슈코 주한 벨로루시 대사관의 포천시 방문과 5월 포천시 대표단의 벨로루시 방문 및 모길로프 시와의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 그리고 지난달 모길로프 주지사 시장 일행의 포천시 방문에 이어, 이번엔 벨로루시공화국 전직대통령 내외가 포천시를 찾음으로써 앞으로 각 분야에서 양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매 기자 94spice@hanmail.net



박윤국 포천시(왼쪽) 스타니슬라프 슈슈케비치 벨로루시공화국 전 대통령과 환담 나누고 있다.

郷土원로초대석 ⑧ …… 포천향교 전교 楊載昌

“빠른改革보다는 점진적인發展이 중요하다”

儒敎의 근본 가르침 ‘옛 것을 통해 새것을 안다’

45년6개월동안 교직생활을 통해 후학들을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교육하다 정년퇴임후에는 유림의 산신인 향교 전교로서 말은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楊載昌(77·포천시 영중동 금주2리 8번지)을 만났다. 연전에서 1년 근무를 제외하고 오로지 포천에서 교편생활 45년6개월을 마친 양응은 정년퇴임식을 볼 때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에 정년퇴임인사를 운동장 앞마루를 들고 난후 간담하게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공직을 마무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경기도교육청 윤육기 교육감(당시 포천교육청 교육장)이 관내 교장이 참석할 가운데 퇴임식을 마련해준 것은 하나의 일화로 전해져 내려온다.

다. 따라서 참수면에 유지하지 못하고 외북면과 창수면의 유림을 세우 학생을 교육했다고 한다. 작은학교만을 고집하며 근무해온 양응은 성실, 근면, 죄우명으로 삼아 보광, 영중, 영평, 금주초등학교에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부임하는 학교마다 체력이 최우선이 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조화전에 운동장 5바퀴를 돌고 조화를 실시하곤 했다고 한다. 정년퇴임후 양응은 서예에 취미를 두고 활동하면서 포천에우회 서예부과장을 역임하고 포천미술협회 포천시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포천향교 전교로 활동하고 있다.

이같은 습관은 포천 향교 전교로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매모에 두었다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으로 이제는 향교 정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양응은 유림을 고리타분한 고리 정도로 생각하는 현시대에 과감한 개혁을 통해 유교의 가르침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문화를 바르게 수용하는 濳故知新의 정신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유교에서도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1950년6월24일 토요일 저녁 신북초등학교 숙직근무중이던 양응을 안 모 교사가 “사택에 내가 있으니 모처럼 일요일이고 하니 집에 가서 쉬라”는 말에 집으로 퇴근했다. 양응은 반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6.25전쟁이후 9.28수복까지는 피난을 미처 가지 못했다가 1.4후퇴에는 평택 안중까지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당시 미수복 지역이었던 창수국민학교에 부임했다.

퇴임후에는 1998년 경기도민상 수상, 2001년 포천문화상을 수상했으며 포천향교지 집필위원과 포천문화 집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소 기록과 메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양응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때마다 메모지에 깨알같이 메모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그동안 스크랩 해온 것도 다양하다. 정치, 경제, 사회분야는 물론 향교관련 자료 스크랩과 향교 전교로서 인사말을 한 내용을 스크랩하여 언제든 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천에는 현재 550명의 등록된 유림회원과 잡재 유림 1천여명을 포함해 2천여명의 유림이 활동하고 있다. 양응은 이 유림의 대표로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종교는 사후세계가 있지만 유교에는 사후세계가 없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양응은 포천향교에서 거행하는 제례의 식도 회원들과 합의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다. 포천신문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양응은 앞으로 포천신문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사회에



양재창 포천향교 전교

꼭 필요한 뉴스를 계속하여 공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빠른 개혁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양응은 역사에서 빠르게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도중에 그릇된 것을 사레로 틀어 교훈삼기를 원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자로서 그리고 전교로서 우리시대의 정신지도자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양응의 모습에서 비정함을 새롭게 깨닫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12호 제목 ‘전 서서서장 장재국’을 전회원서서장 장재국’으로 바로잡습니다.

우수한 상품만 생산유통 석탑산업훈장 수훈 “포천신문은 지역언론으로서 정도를 걷고 있다”

이상갑

(주)꽃샘종합식품 대표이사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선도하고 고객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에 공헌”하겠다는 기업이념으로 지난 40년간 (주)꽃샘종합식품을 경영해온 이상갑(55.사진) 대표이사를 만났다.

이 대표이사는 1965년이라 어려웠던 시절 끝벌과 인연을 맺어 술한 고뇌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한 집념 하나로 한 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었던 1980년대 우리농축산업을 근대화 하겠다는 집념으로 과학영농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포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대기업 유치 필요 “포천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사 필요”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관내에서 상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다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규모업체로서 제조조건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제품을 생산하나 개인적인 관료개혁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됨에 원가적인 면에서 대기업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 김인만(사진) 회장의 말이다.

포천상공회의소는 2001년4월24일 포천시 기업인협의회를 창립하여 활동하다가 2004년4월29일 초대 김인만 회장과 임원·의원 취임식 및 현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하여 국가에서는 2001년 농업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하고 농림부장관포창, 서울특별시장포창, 국제청장포창 등을 수상하고 농림부에서 선정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여는 1천(천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대표이사는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선두주자 역할은 물론 초현대식 위생시설과 생산시스템으로 우수한 상품만을 생산유통하여 국내외 소비자의 건강과 권익보호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포천상공회의소는 소비성경비의 세부회계처리 설명회를 비롯하여 200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강좌,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구인·구직 홍보안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실무설명회, 2005년도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및 신규권업자 병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삼성홀푸드와 GS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유통망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유통망을 이용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효시가 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이 대표이사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에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다. 자사제품을 대기업이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합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한다.

판매장에만 50~60명의 직원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특출한 유통망을 갖고 있는 (주)꽃샘종합식품의 인기는 상한가다. 특히 강원도에서 사업자금을 담보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은 포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유치가 필요하고 대기업 유치가 곤란하다면 대기업의 하청업체라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업체는 그대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며 무등록 공장 등에 대해서는 양성화하여 당당히 경쟁하며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이사는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선두주자 역할은 물론 초현대식 위생시설과 생산시스템으로 우수한 상품만을 생산유통하여 국내외 소비자의 건강과 권익보호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범납세자로 공학 등에서 VIP대접을 받는 이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의 고문으로서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동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양로원과 부락 봉사활동, 수재의연금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중소기업중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포천시를 대표하는 업체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현재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의 잣대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추방하여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현실에 맞는 입법으로 업체가 남용기일을 맞추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삼성홀푸드와 GS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유통망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유통망을 이용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효시가 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이 대표이사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에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다. 자사제품을 대기업이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합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한다.

(사)한국양봉학회 운영이사, (사)한국양봉협회 이사, 포천시체육회 이사, 포천상공회의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대표이사는 “포천신문이 지역언론으로서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바른 길로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 회장은 포천상공회의소 속원사업인 상공회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상공정책관 운영으로 상품관료와 구매자와의 직거래 알선으로 이익을 증대하고 상설구인·구직 센터 개설로 지역주민 및 기업과의 지속적인 유대로 지역경제활성화의 매개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충처리상담실의 활용으로 각종 상담 및 카운슬러를 고정 상주해 하여 상담을 통한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편의 시설 운영으로 교육장 시설을 활용 지역 저소득층 및 기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식시설 등 건전 오락시설을 구비 활용케 함으로써 건전생활 정착에 발판을 마련한다. 상설기능경쟁시험장 및 교육장 개설로 상설기능경쟁시험장을 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상설컴퓨터 교육장으로 개설 활용하도록 하여 기능능력을 향상하게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하라”

포천시의회 임시회 열려 결의문 채택

포천시의회(의장 홍성훈)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1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의 70%가 반대하는 정당 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한데다 기초의원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국회가 개정된 지방선거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은 국

또한 “이해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정당의 잇속과 국회 활동시헌에 쫓겨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

정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말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법률인 만큼 개정 법률에 대한 전면 폐지 및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의원 유급제 명목 하에 의원정수를 줄이고 정당 공천제를 앞세워 정치현금을 강요한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에 따른 상당한 선거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의원들의 중선거구제를 결사반대 한다”고 밝힌 예정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의회는 10일 제1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촉구 결의문 채택했다.

Public information box for Pocheon News (포천신문)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information.